



김범 작 '12가지의 조각적 조리법'

# 300만원짜리 조각통닭 작품 완판

## ■ 2012 광주비엔날레 개막 첫 주말 화제

김범 작 '12가지' 3600만원 수익 복지관 전달  
하룻밤 직접 투숙, 서도호 작 '뜸새호텔' 인기

제 9회 비엔날레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6일 개막한 후 맞은 첫 주말, 빗속에도 수천명의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가 하면, 제작 과정부터 기발한 상상력과 아이디어로 화제가 됐던 일부 작가들의 작품 앞에는 사진을 찍으려는 관람객들이 몰렸고 "어렵지 않으면서 재미있게 즐길만한 볼거리가 많다"는 입소문도 퍼지고 있다.

◇"통닭 없어서 못 팔아요!" = 김범(49)씨가 '12가지의 조각적 조리법'이라는 제목으로 내놓은 종이찰흙으로 빚은 통닭 12마리는 6일 오후 비엔날레 프레 오픈이 시작되자마자 모두 팔렸다. 이날 오후 7시에야 개막식이 열린 것을 감안하면 개막 전 관람객들의 열광이 뜨거웠다.

한 마리당 300만원짜리인 통닭인데다, 판매액 전액을 통닭 쿠폰으로 바꿔 지역 복지시설이나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나눠준다는 취지에 따라 1인당 한 마리로 판매를 제한했음에도 순식간에 팔려나간 것이다. 이로 인해 정식 개막 이후 통닭 작품을 보려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뜸새호텔, 숙박 희망자 접수 줄 이어 = 국내 최고 설치미술가인 서도호(50)씨가 '2012 폴리(Folly) 프로젝트'의 하나로 제작, 공개한 '뜸새호텔'도 숙박 체험 희망자가 몰려들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지난 7일 인터넷에 뜬새호텔 숙박 체험 희망자를 모집하는 공고문을 낸 뒤 하루만에 수십명이 접수하는 등 희망자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20일까지 공개 모집을 한 뒤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10월 이후 체험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기아자동차의 붓고 III(1.2t) 트럭 위에 얹혀져 이곳저곳으로 움직이는 '뜸새호텔'은 서도호 작가와 동생인 서을호 서아티팩트 대표가 호텔 디자인 전반을 총괄했다. 시내를 돌아다니며 가장 흔한 시멘트·화강석·벽돌·포스터가 덕지덕지 붙은 벽면 등을 본뜬 4가지 벽지를 '위장용'으로 준비하는 등 치밀한 디자인으로 폭발적 관심을 끌고 있다.

서씨는 예초 6일 하룻밤을 직접 투숙하러다 촉박한 제작 시기로 인한 미비점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투숙을 미뤘다.

한편, 서을호씨는 기아타이거즈 합평 전용구장 클럽하우스 설계를 맡아 눈길을 끈다.

◇거문도, 목포에도 신사(神社)가 있었다고? = 광주비엔날레의 '눈(NOON) 예술상 청년작가 수상자인



서도호 작 '뜸새호텔'

일본 작가 모토유키 시타미치가 내놓은 '도리이'(鳥居)라는 작품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 일본 일부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각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가 일제 시대 아시아 전역에 세워놓았던 신사의 출입문 '도리이'에 주목한 작품을 내놓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작가 본래 의도와 상관없이 신사 소재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예술에 경계가 없다지만 신사를 다른 작품에 내놓은 작가에게 청년 작가상을 주는 게 타당하냐"는 주장 등도 덧붙여져 관람객들의 작품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작가는 이와관련, "일본 역사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것은 결국에는 누군가가 쓴

이야기로, 그게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알기 위해 그 역사적 공간의 분위기, 공기를 느끼고자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도리이가 일제시대에 생겼지만 현재 타이완의 도리이는 남아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완전히 잊혀져 숲 속 한가운데 방치돼 있고 한국에서는 전혀 남아 있지 않았다"면서 "각 나라에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진은 그 풍경 자체로 관객들에게 지금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누군가의 입장·관점이 들어간 도리이에 대한 글과는 다른 현재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과거 일제의 정책을 에둘러 비판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쏟아지는 빗줄기도 이들의 열정을 식히진 못했다

월드뮤직페스티벌, 문화콘텐츠 가능성 보여줘... 조직 안정화 필요

공연 첫날에는 빗줄기가 쏟아졌다. 하지만 관객들의 열정을 가로막지는 못했다. 우비를 입은 관객들은 함께 환호하며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전형적인 가을 날씨였던 돌팍날. 무대 앞쪽을 매운 이들은 흥겨운 음악이 연주되자 춤을 추고, 소리 지르고, 뛰어오르며 분위기를 달궜다. 잔디밭에 삼삼오오 자리 잡은 관객들은 리듬에 몸을 맡기고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뮤지션들은 서툰 한국어로 연신 "감사합니다." "소리 질러"를 외치며 엄지 손가락을 치켜 들었다. 7일과 8일 전남대 운동장에서 열린 2012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난생 처음 듣는 아프리카 악기 코라의 열통한 음색, 집시 음악의 유희함, 세계적인 재즈 그룹이 들려주는 '아리랑'까지 다양한 음악을 함께 즐긴 페스티벌은 광주 대표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보여줬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주최로 3회째를 맞은 이번 페스티벌에는 15개국 26개 팀이 참여했다. 7일 메인 스테이지인 전남대 운동장 무대에선 재즈 밴드 누에바 만테카의 음악은 관객들을 흥겹게 했다. 양방언 밴드의 서정적인 음악은 빗속 관객들의 발길을 그대로 묶어두었다. 마지막 출연팀이었던 '발란 비트 박스'의 공연은 취소돼 아쉬웠다.

8일 무대에 오른 스웨덴·세네갈 출신 4인조 그룹 '소소& 마헤르 시스코'의 음악과 악기 연주는 관객들을 들뜨게 했다. 화려한 복장과 쇼맨십, 유쾌한 집시 음악으로 모든 관객들 댄스로 만들어버린 '라 카라반 파스'는 단연 인기.

피날레를 장식한 다니엘 페레즈&프렌즈는 실력적인 재즈곡과 함께



7·8일 이틀간 전남대학교 등에서 열린 2012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은 광주 대표 문화콘텐츠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아시아문화개발원 제공>

'베사메 무초'와 '아리랑'을 연주했다. 같은 날 비엔날레 전시관 습지공원에서 진행된 '어코스트 스테이지'에 출연한 거문고 락토리 등의 공연도 인상적이었다.

대중가수들의 공연에 익숙해 있는 관객들에게 이들 뮤지션들의 음악은 분명 낯선 음악이었지만 어린이부터 70대 노인까지 다양한 관객들은 음악에 몸을 맡기며 저마다 제 방식으로 즐겼다. 젊은 관객들이 분위기를 주도했다면 이날 많이 눈에 띈 가족 단위 관객들은 즐겁게 호응했다.

월드뮤직페스티벌이 광주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점이 많다. 우선 조직의 안정화.

지난해까지 행사를 진행했던 사단법인인 해체되고 올해 문화중심도시 추진단 주관단체 공모 공고문을 낸 게 벌써 4월, 아시아문화개발원이 주관단체로 선정된 것은 지난 6월이었다. 지난해 출범한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존재 이유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콘텐츠 개발이라는 점을 감안, 을초부터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됐지만 결

론을 내지 못하고, 이 과정에서 초창기부터 참여했던 인재진 예술감독의 불참설까지 나왔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아시아개발원이 주관단체로 선정되기는 했지만 행사 시작 3개월 전에는 사무국이 꾸러지다보니 라인업 구성, 홍보 등에서 고전했다.

공연 장소를 선정하는 문제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2014년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때까지는 각 구를 돌아다니며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적당한 공연 장소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안정적인 장소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올해 공연 장소도 페스티벌 시작 5일 전에 변경됐다. 당초 전남대 일원에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학교 측이 일부 장소 사용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급하게 장소를 비엔날레 전시관 옆 공원으로 변경해야했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항의가 빗발쳤다.

그밖에 안정적인 예산 확보도 풀어야 할 숙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구희영 작곡 '걸으면서 하늘을' 배워요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회, 14일 호남신학대 티브라운



매달 한차례씩 모여 가곡을 부르는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회(회장 황선옥)는 지난 7월에는 조선훈 병원에 서 환우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노래로 위로받는 모습을 본 회원들은 정기적으로 병원 등을 찾아 가곡

사람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9월 행사는 오는 14일 오후 7시 30분 호남신학대학교 티브라운에서 열린다.

매회 한명의 작곡가를 집중탐구하는 회원들이 이번엔 초청한 작곡가는 구희영(서영대 교수·사진)씨다.

구씨의 작품 중 '걸으면서 하늘을'을 함께 배우며 초성 악가 소프라노 김진희씨가 '내님이 오시는 길'을 부른다.

모임은 매월 두번째주 금요일에 티브라운에서 진행된다. 문의 062-575-5999. /김미은기자 mekim@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봉사 OFF SALE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 (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 227-9940 총장점 062) 227-9970  
 목포점 061) 262-9200 장흥점 080) 222-9975  
 서울점 02) 765-9940 순천점 061) 752-9940

이태리가구 40% OFF SALE

NAVER 홍스페이스 신상품 소파 입고! www.hong79.com(홍천구닷컴)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동구청·장동도터리) 가구빌딩 400평 ☎1899-0240 2012 결산 빅세일 10월25일까지